

고은 불교대학 소설



어떤 공부도 어떤 수행도 허깨비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속에 담겨서 어디로 빠져나갈 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인담은 수행 자세를 너무 큰 목적으로 삼았다. 이 세상의 무욕도에서 사는 동안 그는 밥 먹으라고 알리는 운판(雲板) 소리처럼 길게 울리지도 않는 짧은 시간으로도 얼마든지 부처가 되고 보살과 조사의 일이 마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그의 나날은 걸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런 목적 때문에 차츰 공부밖에 부딪친 적도 있었다.

특히 그는 우녀의 신기(神氣) 따위를 내내 꽃마방에 하면서도 어느덧 그 자신도 그녀의 신기 혹은 법일(法悅)에 기울어졌던 것이다. 난바다의 밤중에 그가 '상수'라고 불러대지마자 그 격렬한 파도머리가 우연히도 맞아떨어져 그 기운을 소그리게 된 일 자체도 이제 와서 천정 쪽의 서개래가 드러난 태를 올려다 보며

하였다. 오래동안 하늘이 없는 사이 그대로였다. 다른 것들은 다 변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뜻은 변할줄 몰라서 그것이 더욱 남아보이기까지 하였다.

"망상이 찾아와서 이려고 있고" 라고 말하며 인담이 일어나 앉았다.

그의 모습이 아주 초채하였다.

뒤 수군 두 사람이 섬에 올라와 이것 저것 캐물어 일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 화승총과 칼로 무장한 수군은 본래 이 무욕도는 무욕이라는 이름도 없는 무인도였는데 어떤 내력으로 여기 와서 여러 사람이 살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그 다음으로 이곳에 몇사람이 살고 있는나는

인담은 제대로 들리지 못한 허성(虛聲)의 목소리로 말하였다.

하지만 이제까지 한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수군이어서 궁금하기는 우녀들이나 마찬가지였다. 한두번 육지의 현(縣)의 이속(吏屬)이나 수배인물을 기할하는 '또출'이 건너온 일은 있지만 이 섬은 거의 행정상의 어떤 견제도 받아본 적이 없다.

기껏해서 물 건너 어촌의 이정(里正)이 이곳으로 오는 사주(施主)의 불건을 하나 하나 적어간 적이 있어 그 사주의 바깥주인인 서산현감한테 단단히 혼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사후선이 나타난 일은 이 일대가 심상치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인담은 이곳의 도함을 개척한 사람답게 바로 그의 고단한 몸을 일으켜 바깥으로 나왔다. 대해들과 함께 무욕도 북쪽으로 쉬엄쉬엄 돌아가 거기서 정박해있는 사후선을 살펴보았다.

도 보이지 않았다. 인담들의 패배가 사후선의 위풍당당한 뱃전 가까이 다가갔을 때야야 '탕!' 하는 화승총소리가 났다.

수군 한 사람이 총을 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배의 갑판에는 몇사람이 나와서 인담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 쪽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뽀뽀들이냐? 감히."

"소인들은 저 무욕도에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중이란 말이냐?"

"예."

사후선의 간부인듯한 털보장수가 인담들을 단정히 그물을 타고 사후선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때때는 사후선에 달려있는 거룻배 이물 고리에 밧수 있었다.

선실 1층의 한군데로 두 사람은 인도되었다.

털보장수가 그들을 맡은 것이 다름이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위인이었다. 충청도

인담의 눈물

"무얼 좀 드셔야 하지요?"

"빈 속이 권하네요."

우녀는 더이상 인담에게 권유할 것도 없었다. 그때 상술과 소식이 죽을 쑤어서 들고 왔다.

그것을 우녀가 받아 인담 앞에 놓았다. 아무런 말도 없었다. 잔소리 그만두고 어서 먹어두라는 셈인가. 새 여자가 말없이

질문과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신변을 알기 위한 무척박한 질문들이 있었다.

우녀가 나서서 차분하게 대답하였으나 수군 중의 하나가 대해와 효영 명오들을 목자 사냥개 훑어보는 것이었다.

그들은 일단 거룻배를 저어서 본선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본선이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 섬에 누구 허락을 받고 살기 시작했는가" 사후선 털보장수의 물음에...

아주 못마땅해 하였다.

"... 내 공부에 마근(魔根)이 들어왔어."

사실인즉 선 수행에서 반드시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은 한 마음으로 오롯이 정진하는 일(正進)인 것이다.

내가 어서 화두를 타파해야 한다던가, 내가 부처가 되어야 한다던가 라는 따위 생각이 있다면 벌써 거기에서는 집착의 세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매미가 나무에 늘어붙어 하루내내 울듯이 선객은 오직 한 마음으로, 아니 한 마음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끄떡없이 앉아 있는 것 자체로 되어야 한다.



가야산 채악군이었던가? 아니었다. 그가 스승 담인의 본부대로 임춘의 문집을 찾으러 황해도 동쪽으로 가던 중 예성강 어귀에서라도 만났던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

"그래 저네들은 제집도 몇사람 함께 사는 모양인데... 그래도 염불이 잘 된단 말인가."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 섬에 누구의 허락을 받고 살기 시작했는가?"

"본다... 아주 옛날 누군가가 그 섬에서 수행을 한 일이 있다 하거니와 근년에는 물살이 얕한 곳이라 사람 없는 곳으로 되었다가 제가 처음으로 건너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고 묻지 않았는가?"

"저 빈 섬이나 임자 없는 것으로 알고."

"조선도 어디도 다 국왕의 땅인데 어찌 임자가 없단 말인가."

"....."

그때야 인담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규정도 받지 않는 곳을 새삼 확인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나라에서나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군정(軍丁) 납세와 부역 등에서 속 빠져있었던 사실을 떠올렸다.

"도를 닦는다는 이름 아래 나라에 붙종하는 무리가 조선도의 산중이나 이런 섬들에 살면서 나라의 법을 업신여기는 대역부도의 무리들이 근자에 짐작컨대 무려 몇10만이나 된다."

"....."

"그들 가운데서 변란을 도모하는 일도 적지 않아서 지금 저 관서지방 해안 일대에서 큰 난리를 일으킨 사단이 벌어졌다."

"....."

인담은 난감하였다. 그러나 걸음로는 태연하였다.

그림 · 조향숙

인 담은 꿈 속의 스승이 멀어져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스승의 뒷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 하늘 높이 날리던 연의 실이 끊어져 연이 하늘 속으로 휘적휘적 떠나려가는 것처럼 멀어져 갈 따름이었다.

그는 꿈속에서 영영 울지는 않았으나 매우 슬펐다. 그가 걸고 있던 목의 백팔결주가 그 영주를 쥔 끈이 삭았는지 발 언

"내 공부에 마근이 들어왔어"
인담은 수행에 대한
뉘우침으로 자신을 새로...

저리로 후두둑 떨어져 흩어졌다.

그때야 꿈속에서 흩어진 백팔결주 때문에 그 꿈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떴다. 작은 회상문 위의 벽에 걸어진 백팔결주는 그대로 있었다.

그는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다. 그대로 누워서 천정 쪽이나 벽이나 햇발을 머금은 문 쪽이나 한동안 멍뚱뚱 바라보고만 있었다.

흔들림이 있었다.

"내세도 구름의 형(雲兄)이 있고 물의 아우(水弟)가 없지 않는데... 꿈 속의 스승 때문에 이르도록 슬프단 말인가. 모를 일이라. 모를 일이라."

그는 이제까지 한 그의 공부가 새삼 헛되다는 생각이 그 슬픔 뒤를 차지하는 마음이었다.

머구나 그런 공부의 어느 단계에 가서 간화선이란 특조선이든 아니 염불선이란 막론해서 비동사공 사이에 보살이 나타나거나 어떤 신이(神異)한 영험이 있게 되거나 하는 일이라말로 선에서는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무욕도의 공부에는 알개 모르게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 우녀야말로 아주 잘 알날을 알아맞췄는데 바로 그런 경지가 수행의 평상심을 가르막는 일이기도 한 것이었다.

이렇게 인담은 이렇게 누워서 그동안의 수행에 대한 뉘우침으로 여제밤의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자신을 새로 이어가고 있었다.

우녀가 인기척을 보내지마자 문을 열었다.

"어퍼진자..." 라는 따뜻한 말투로 위로

앉았는지 인담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 죽을 때까지 시작하였다.

소식이 그 청정한 눈에 눈물이 고이며 말하였다.

"어서 회복하세요."

울도 눈을 지긋이 감고 있다가 슬쩍 떠 무욕도의 어른인 인담을 새삼 경의를 품고 바라보았다.

그들은 효영 명오들에게 먼저 죽을 보내고 나서 인담의 방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세 사람이 어젯밤의 바다에서 살아난 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군의 사후선(高溪船)이 무욕도 부근에 정박한

다른 배와는 달랐다. 언젠가 대해가 만난 청나라 복주(福州) 일대의 바다를 주름잡는 수적(水賊)들의 배 규모와 엇비슷한 것인데 배의 갑판 위에 2층으로 된 선실이 있었다.

누런 빛깔의 영기(令旗)가 권력대고 있었다.

우녀가 죽을 다 비운 인담에게 그런 수군 얘기를 하였다.

"아침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라..."

"사해를 감찰하는 나라의 수군 사후선인 모양이유."

"우리한테 무슨 불일이 있겠소?" 하고

과연 이 텅빈 바다에 난데없는 화려한 누각이 떠있는 것이었다.

"....."

그러나 인담은 이럴 때일수록 그 자신이 힘을 내어 무욕도의 대중을 편안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어제 밤의 그 극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애써 담당해져야 하였다.

"대해가 나와 함께 건너가 봅시다. 효영 명오는 더 정양(靜養)해야 할 것인즉."

그는 대해와 함께 조심스레 배를 탔다. 대해가 사대질을 하여 물의 흐름이 바람을 활용하여 나아갔다.

그림처럼 떠있던 사후선은 아무런 동작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2월 28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교과목 : 주 5일 수업				
1 학 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 학 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상담
 - ㄴ. 소정의 법사교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